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독신품(篤信品) ②

信使戒誠 신사계성
亦受智慧 역수지혜
在在修行 재재능행
處處見賢 처처견양

믿음은 계행이 진실되게 하고
또한 그로써 지혜를 만나니
있는 곳 어디서나 능히 행하고
가는 곳 마다 기뻐진다

比方世利 비방세리
慧眼為明 혜안위명
是財上寶 사재상보
家產珍寶 가산비상

그것을 세상의 이익에 비하면
지혜와 믿음은 한층 밝으니
재물 중에도 으뜸 보배라
집 재산은 덧없는 것이다

欲見諸賢 욕견제전
樂聽妙法 낙청묘법
能離煩惱 능리번뇌
此之為信 차지위신

온갖 진리를 보려거든

“믿음은 오로지 어짐과 짝하게 하니
진리 보려거든 간탐과 허물 버려라”

살법 듣기를 즐겨 하고
간탐과 허물을 능히 버려라
이를 믿음이라 하느니라

信能安可 신능안하
其福難奪 기복난탈
能離禁盜 능리진살
野火難燒 야사문라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감을 건너게하고
그 복덕은 빼앗지 못하니
잘 단속하여 도둑질을 그쳐라
그것이 소말한 사문의 즐거움이다

無信不習 무신부습
好象正言 호상정언
如脂取水 여출취수
掘泉掘地 굴천양니

믿음이 없어 익히지 않고
가르침 필박하길 좋아하면
서투른수로 물을 얻으려다
진흙탕을 만드는 것과 같다

賢夫智習 현부습지
樂聞妙法 낙청묘법
如善取水 여선취수
思令不壞 사령불요

현명한 이 지혜를 익혀
즐거 맑은 흐름 우러르니
숨겨 좋게 물을 길는것 같이
생각이 들뜨지 않는도다

信不染他 신불염타
唯賢與人 유현여인
可及聖學 가호성학
非及聖德 비호성덕

믿음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어짐과 짝하게 하니
좋아할 만한 것은 배우고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한다

信為我難 신위어어
莫如斯難 막지사재
如大家調 여대상조
自調最勝 자조최승

믿음을 나의 수레로 삼아라
거기 탈줄을 모르거든
마치 큰 코끼리를 다루듯이
스스로를 다루는게 가장 좋다

信財戒財 신재계재
慇懃勿財 참고역재
開闢財財 문재사재

慧慧七財 혜위칠재

믿음의 재물, 계율의 재물
제부끄러움, 남부끄러움의 재물
들음의 재물, 배움의 재물
지혜의 재물이 일곱재물이니라

從信守戒 종신수계
常淨慧法 상정관법
慧而利行 헤이리행
奉敬不忘 봉경부망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법을 관해
지혜롭게 지리아타 행하고
가르침 받들어 언제나 잊지말라

生有此財 생유차재
不問男女 불문남녀
終以不貢 종이불빈
賢者眞眞 현자진진

살아서 이러한 재물있으면
남녀를 물을 것도 없이
마침내 가난할 일 없으니
현명한 이는 진실을 잘 안다

龍眼

성수스님 (법수선원 조실)

마음 문 열리면 만물이 禪이고
마음에 부딪치는 모두가 진리
눈 뜨고보면 나무도 道 알려줍니다

한광생 사자후를 토하며 좌우정축(左
右講議:여러 곳에 청함)했던 성수스님.
20세의 젊은 나이에 의구심과 신념으로
달귀진 세치 혀로 효봉, 성철, 구산, 인
곡, 청담스님 등 당대 쟁쟁한 선지식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성수스님은 일흔 다섯
인 지금도 “선객(禪客)을 살피우는 것은
담금질뿐”이라고 말한다.

나는 19살되던 해에 스스로 출가했어
요. ‘스스로 출가했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은사스님인 성암스님이 머리
를 깎아주기 전까지 전국 사암을 찾아다
니며 선지식을 만나려고 노력했으니까
난 그때부터 출가한 것이라고 해야 할겁
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17살때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에서도 출가의 인
연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시 우리 마을에
는 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가’고 물으면
그들은 하나같이 원효대사를 꼽았죠. 지
금의 나 성수는 원효스님이 만들어냈다
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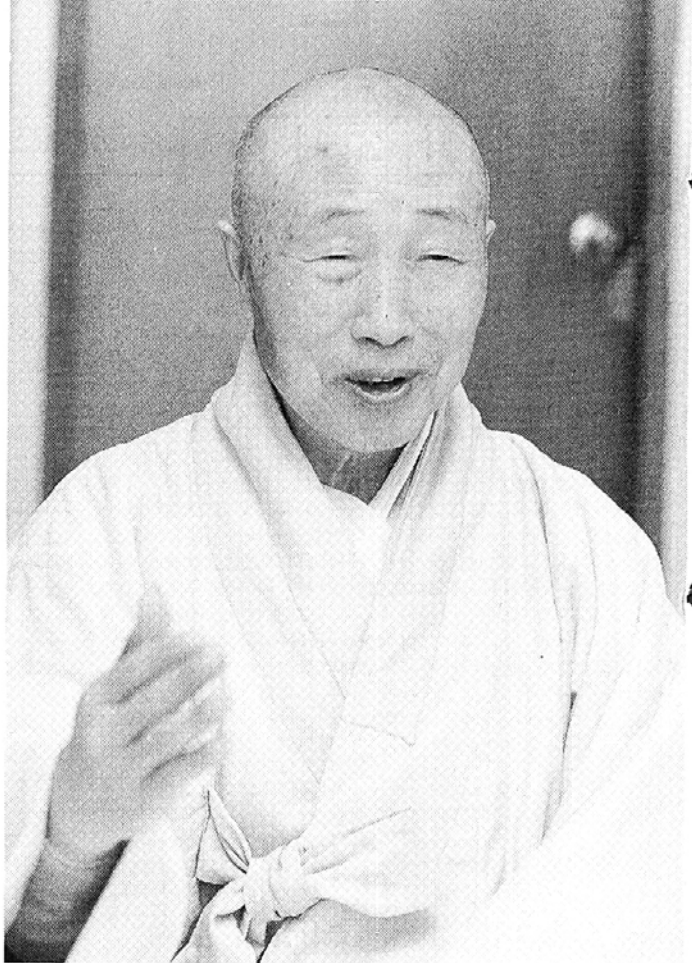
원효스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다는 생
각은 유교적인 가풍에 눌러 발살조차 용
납되지 않았죠. 2년후 아버님이 돌아가시
자 나는 큰 형님에게 내 결심을 이야기
했어요. 나는 끈질기게 형님을 설득해 결
국 마을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오면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만에 반드시 도인이 되어 돌아오겠
다는 각서까지 쓰고 출가를 했지요.

집을 등지고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은 당연히 원효스님 같은 스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사찰을 헤
맸지만 정작 스승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범어사에 이르러 나는 울화통
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년간의 민행으
로 얻은 누더기를 걸치고 범어사 일주문
을 지난 나는 “큰 중 나와라”라고 소리
쳤습니다. 당시 국인의 생활여건이란 말
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범어사와 같은 으리으리한 대가람에서
지내는 스님들의 모습에 그만 화가 치밀
어 울랐기 때문이죠. 그때 한 스님이 나
와 “왜 큰 중을 찾아왔소”하고 말을 걸
어왔습니다. 나는 다짜고짜 “국인 모두가

다 이런 고대광실에서 놓고 먹기만 하면
나라 풀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대로 된
큰 중이 있으면 당장에 나와 보라!”며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스님은 시종일관 말없이 서있을 따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스
님이 바로 동산스님이었어요. 그렇게 인
연 맺은 동산스님은 내가 천성산 조계암
에서 공부를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계암은 바로 원효스님이 수행했던 토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정식
출가를 하지 않았던 나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생식과 면벽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조계암 시절 나는 은사이신 성암스님
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성암스님이 불러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느냐”고

- 1923년 경남 울산 생
- 1944년 성암스님 은사로 득도
- 범어사 해인사 조계사 주지 역임
- 1981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합일소제 토굴에서 정진중



“초발심자경문 40일동안 10만독
천수경도 10만독 하고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물기에 “영웅이 되려고 여기에 왔는데
가르침을 줄만한 스승이 없어 고민스럽
다”고 했죠. 그러자 성암스님은 “자고로
영웅치고 무식한 사람은 없으니 나한테
굴이나 먼저 배우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공부를 시작해 (초발
심자경문)을 처음 배우게 되었죠. 내 기
억으로 ‘초심’과 ‘발심’은 이불동안 배
우고 ‘자경문’은 삼일동안 배웠습니다.
성암스님이 (초발심자경문)을 모두 가르
쳐주어 49일동안 10만독을 하라고 시
켰어요. 말이 10만독이지, 한 책을 그렇

게까지 읽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성암스님의 권유에 따라 나는 40일만에
10만독을 해냈습니다. 십만독을 성취하
고 나니가 무언가 어렵듯하게나마 개념
이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죠. 그후에 천수
경도 10만독을 하니가 세상이 달리 보이
는 겁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
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성들여 원
력을 세우면 하늘도 그만큼 감복하여 그
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자들이 이 마음을 알았으면 해요. 극
(極)에 달(達)하도록 지극하면 반드시

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는 것을 말입니다.
공부가 진전이 있다고 보셨는지 성암
스님이 정식으로 출가를 권유해 그때 삭
발했습니다. 정식출가한 후에도 조계암
에서의 수행은 해방이후까지 계속됐죠.
사실 그때 공부에 얼마나 열을 올렸던지
조계암을 지나가던 약초캐는 사람에게
해방된 사실을 알게되었죠. 이듬해 성암
스님이 해인사로 보내지더군요.
당시 해인사에는 효봉·청담·구산·
인곡스님 등이 계셨습니다. 성암스님의
서찰을 들고 해인사를 찾아가니 글씨 나
보고 공양간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
나 나는 ‘공부하러 왔다’며 선원에 들어
가길 고집했습니다. 나는 결국 효봉스님
에게 인계되었는데 스님의 첫 마디는
“요놈, 하심(下心)을 먼저 배워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상심(上心)이 무
엇인지도 모르며 하심을 알겠습니까?”라
고 맞받아 쳤죠. 새파란 젊은 승의 당찬
기세를 잘 본 탓인지 결국 “도는 일주일

생활 속의 불교 118

제 집 비워두고 남의 집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밖으로 지팡이를 삼는 게 있으면 절대
로 근본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이
아닌 것을 문이라고 생각해서 열려고 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지팡이를 삼는 게 있으면
환상이 많이 보이고 누구는 어떻게, 내일은
어떻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보면
잘못되기 십상이다.

또 밖으로 찾으려 하니 좋은 이름 찾
게 되고 높다는 자리 찾게 되고 출렁하
는 시립 찾게 된다. 어디 영원한 도량은 없
나, 어디 고명하다는 스님은 없나 하고 두
리번 거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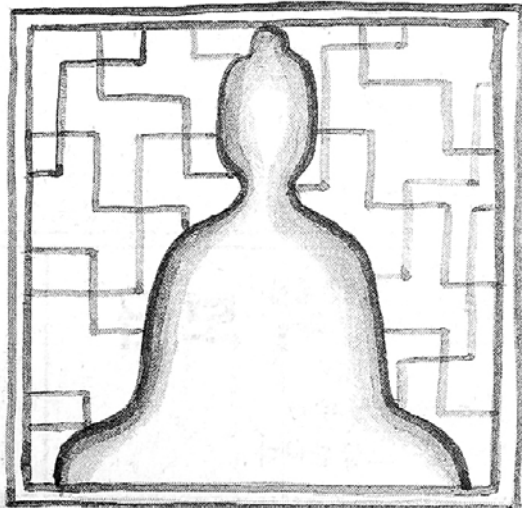
마치 오른 발 왼발이 따로 놓고 눈 귀가
따로 노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나를 섬기지 말고
자성부처에 귀의하라.’ 하신 것은 너무나 유
명한 이야기이다. 웬만한 불자라면 다 들어
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부처님 전
에 엎드려 빌기를 멈추지 않는다. 빌대에 가
서 절을 하는 것은 아상을 조복받는 하심의
실천이며 나아가 부처님께 자성부처에 귀
하겠다는 서원을 올리는 것인데도 그런 의
미의 절이 아닌 기복의 절을 한다.

비는 것은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일
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자성부처를 믿기는
커녕 그냥 ‘복이나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에 함당하겠는가. 부처님을 경배하지 않
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근본은 본
래 부처’임을 믿어 당당한 주체성을 가지라
는 것이다. 바로 대장부의 신앙을 이룸이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다. 유전공학이
이제는 인간까지 복제하는 단계로 가는 세
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의 고
귀한 삶을 바깥의 형상에 얽매어 놓는다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
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번쯤 되돌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욱 심한 경우는 짐바치의 말이나 부적
따위에 의지하는 일이다. 제 생명 제 가족
의 일을 남에게 묻는다는 것부터가 우수장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돈 몇푼 벌
어볼 요량으로 만들어 놓은 붉은 종이 쪽
지에서 삶의 의지처를 찾는다는 것은 단지
외도나 미신에 불과한 일이다. 과학의 시



대에 살면서 어찌 그러한 소극(笑劇)에 동
참할 것인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의지하
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절대신
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예도 있
다. 그러나 어떤 류의 신이 되었든 대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빌고 의지하는 것은 제
집을 비워두고 남의 집에 가서 살기를 바
라는 것과 같다.

남의 목장의 소를 세면서 그 소가 내 목
장으로 넘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접대기가 접대기에게 비는 허수아비 놀음
일 뿐이다.

오관을 출중하게 갖추고 태어난 인간으
로서 무엇을 향해 땀 흘리고 빌고 밥 해놓
고 빌 것인가.

불법을 만난 불자로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부적 따위를 벽에 부치고 몸을 지
니고 배개 속에 넣어 놓고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하겠는가.

그것은 몇몇한 인간이 아닌 노예의 삶일
것이니 살아서 노예로 지내면 죽어서도 노

예, 다음 생에도 노예이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어찌 인간답고 불자다운 삶이
이러해야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보궁의 열쇠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셨다. 고로 각자 마
음의 능력을 개발해서 당당한 주인으로 살
라고 하셨다. 허공을 쳐다보며 ‘나를 구원
해주소서.’ 해본들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
도 메아리는 없으니 안으로 불을 밝혀 자
기부처에 의지하고 자기부처를 만나라고
하셨다. 심지어는 부처님에게도 의지해선
안된다고 하셨다.

불법은 그렇게 당당하고 성스럽고 광대
무변한 주체의 법이다. 밖으로 구원을 갈
구하는 약한 법이 아니라 안으로 보궁의
문을 여는 몇몇한 법이다.

그런 불법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말라.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불법을 더
럽히는 일에 뛰어들 것인가. 그 업보를 어
찌 감당하려고

협찬 : 주인공